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 사실상 당선

경쟁후보 성일 스님 사퇴… 9월 6일 산중총회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남양주 봉선사 차기주지 선거에서 후보 성일 스님이 사퇴하면서 초격 스님〈사진〉이 사실상 당선을 확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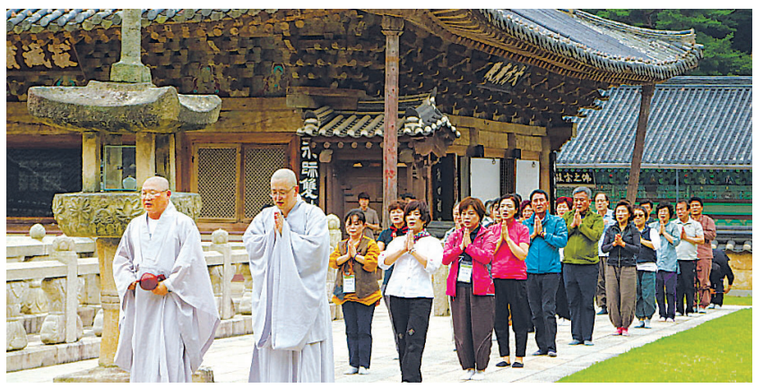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세영)는 9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회의를 열어 봉선사 주지후보로 나선 성일 스님의 사퇴를 확인하고, 초격 스님의 자격심사결과 이상 없음을 결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성일 스님은 2일 후보사퇴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초격 스님은 9월 6일 열리는 주지후보 선출 산중총회에서 성원과 관계없이 무투표 당선된다.〈차호상보〉 선관위는 아울러 일부 자격이상자를 제외하고 산중총회 구성원 명부를 확정했다.



한편 초격 스님은 경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7년 봉선사서 운경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8년 통도사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한국문화연수원장과 총무원장 종책특보, 파주 보광사 주지, 제13~17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삼보일배를 하는 연수 참가자들.

포교원 2019수행바라미 3차 연수

'염불' 주제로 1박2일간 보리암 · 통도사 순례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이 진행하는 '2019 수행바라미 3차 정진 연수' 가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남해 보리암과 양산 통도사서 진행됐다. 이번 연수에는 △경제인불자연합회 △조계종산악회 △수협불자회 △한국세무사불자연합회 △대한불교청년회 △한공무원불자연합회 △체육인불자연합회 △예비역불자연합회 등 11개 단체의 실무자 36명이 참가했다.

보리암에 도착한 동참자들은 입재식을 봉행한 후 △108염주 만들기 △저녁예불 △우리말금강경독송(3독) △철야정진 △새벽예불까지 염불수행을 이어나갔다.

연수는 이튿날 통도사 적멸보궁 사리탑에서의 3보 1배 수행정진으로 마무리됐다. 참가자들은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90분 동안 사리탑을 참배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대중 의견 받아 사업 마련

9월 30일까지 사업제안 접수

조계종이 사부대중의 의견을 주요 종단사업으로 채택한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최근 홈페이지에 '조계종 종도 사업제안 제도'의 취지와 계획을 공개했다. 이 사업은 종단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존사업 이외에 새롭게 수행해야 할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고,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해 종단사업으로 채택하는 제도다. 9월 30일 오후 5시까지 종단 스님과 재가신도들이 사업제안 신청서를 작성해 총무원 기획실(우편 ·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채택된 제안사업은 해당 부처의 중앙종무기관 종무에 반영해 시행되며, 종법에 위반되거나 종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경우에는 채택될 수 없다. (02)2011-1730

윤호섭 기자

'불편한 동거' 태고종… 입장 차 여전

호명 스님 측 청사 진입, 편백운 스님과 대화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태고종 제27대 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9월 1일 서울 사간동 총무원 청사에 들어가면서 제26대 총무원장인 편백운 스님과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 두 스님은 여러 차례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서로의 입장을 밝혔지만 입장 차이는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측은 대화의 여지를 남겨둔 채 사회법 결과를 중심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모양새다.

먼저 호명 스님은 9월 2일 태고종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회의를 열고, 총무원사 진입 후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호명 스님 측에 따르면 제27대 집행부는 9월 1일 총무원사에서 열린 법회가 끝난 뒤 신도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스님들이 진입했다. 당시 편백운 스님 측은 청사를 비워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명 스님은 "그동안 임시총무원에서 업무를 보다 집행부로부터 편백운 스님 측과 물리적 충돌 없이 청사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이 자리에 나왔다"며 "종단 안정이 최우선이다. 전국 종무원장스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 자리서 한 관계자는 "편백운 스님이 과거의 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총무원사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대부분의 종무원장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면서도, 협상의 가능성은 열어둔 채 대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선암사 주지 시각 스님은 "종단의 명예와 종도들의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편백운 스님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상대방과의 대화는 필요하겠지만 무리한 협상은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종무원장들, 호명 스님에 종단 안정 최우선 노력 당부
편백운 스님 직선제 도입 전제 직책서 물러나겠다는 뜻 밝혀



9월 2일 태고종 총무원사에서 호명 스님 주재로 열린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회의.

이에 호명 스님은 "27대 집행부의 정상적인 행정업무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끝나야 가능할 것 같다"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전국 종무원에서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한다. 당분간 총무원사 내에서도 양분된 형국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후 회의서는 총무원장과 중앙종회의장, 호법원장, 전국종무원장협의회장 명의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직위 사칭 등 해종행위로 간주 △불법적으로 허비한 종단 재정과 발전기금 환수 △한국불교신문의 명예훼손 행위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종단은 그동안 중단된 각종 종무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 대내외적인 신뢰회복을 위해 참회하고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제26대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전국종무원장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호명 스님 측을 향해 불법침입 · 업무방해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편백운 스님은 "상대방에게 과거 일을 묻어두면 물러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면서 "앞서 내년 1월 민주적인 직선제를 도입할 시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것은 아직도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인재양성 · 복지 · 위상강화 '한 목소리'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후보 선거공약 살펴보니 대동소이

조계종 제12대 전국비구니회장 선거가 9월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후보로 등록한 기호1번 현 회장 육문 스님과 기호2번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본각 스님이 선거공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 모두 인재양성과 복지확대 등에 방점을 찍어 대동소이한 인상을 남겼다. 이에 각 후보들의 공약을 키워드별로 비교했다.

두 후보가 대표적으로 강조한 공약은 '복지확대' 다. 육문 스님은 비구니 전용 복지요양원 설립을 추진하고, 각 지역 불교요양원을 연계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아울러 기존 의료비 지원과 건강검진을 확대하는 한편, 전국비구니회관 객식을 재정비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돕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본각 스님은 비구니 노후수행시설을 건립하고, 위탁운영하며 안정적인 수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종단 승려복지회와 협력해 장기 복지플랜을 수립하고, 여성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홍보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기호 1번〉



육문 스님 공약

- 비구니 위상강화
- 복지제도 확대
- 수행전법 지원
- 인재양성 교육

'인재양성' 과 관련해 육문 스님은 △연수교육 무료 실시 △템플스테이 · 호스피스 전문가과정 정기교육 △장학사업 확대 △비구니 그룹스터디 지원 △국제적 전법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강조했다. 반면 본각 스님은 비구니 단기 해외어학과 장기유학 프로그램 도입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와 함께 포교활동 자료 발간과 종단 입법 · 행정분야 교육과정 신설, 초심행자와 사미니 교육환경 개선을 인재양성 방안으로 제시했다.

〈기호 2번〉



본각 스님 공약

- 복지체계 구축
- 인재육성 활용
- 비구니회 소통
- 사회문제 대처

전국비구니회 위상강화를 위해서는 두 후보가 서로 다른 접근법을 구상하고 있다. 육문 스님은 주로 종단현안과 관련된 개선안을 발표했다. 스님은 앞서 지속적으로 논의돼온 비구니 특별교구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조계종과 선학원의 갈등으로 발생 가능한 비구니 권리제한 등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앙종무기관과 종립학교, 복지기관 등의 비구니 소임 확대 의지도 밝혔다.

본각 스님은 대사회적 사안 대처와 세계화 등을 중심으로 위상강화를 계획했다. 본각 스님은 양극화, 인권 등 문제에서 비구니 역할을 모색하고, 종단 백년대계본부 · 사회노동위원회와의 업무협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단체 활동을 장려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이 같은 공약을 제시하면서 전국비구니회 발전을 위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다.

육문 스님은 "지난 4년은 원로스님부터 사미니스님까지 부족함 없이 두루 살피고자 노력했다"며 "아직 전국비구니회는 이부승가의 위치로 자리매김 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앞으로 종단과 긴밀한 협조로 전국비구니회가 종단의 견고한 한쪽 날개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본각 스님은 "비구니 모두가 승가의 일원으로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싶다. 아이디어가 효율적으로 수렴되고, 민주적이고 개방된 시스템을 마련하고 싶다"며 "스님 각자 갖고 있는 잠재력과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받침이 되는 비구니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윤호섭 기자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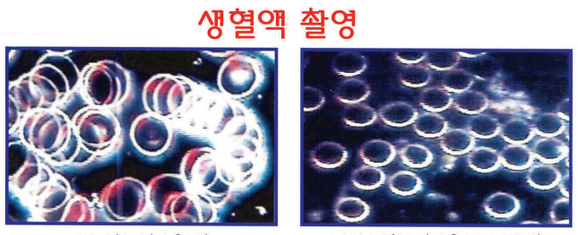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8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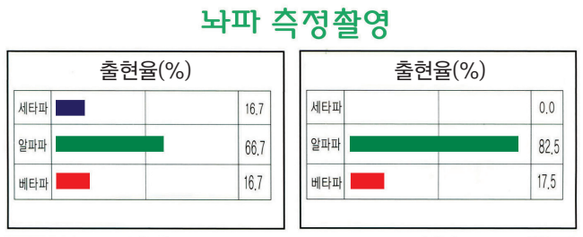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어깨, 허리통증, 방사능 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검버섯 제거 현상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